

중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의 학업성취수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은선경
케이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Making and Youth Activitie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Level

Sun-Kyoung Un
Division of Social Welfare, KC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활동 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 2,471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활동 참여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 수준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 참여는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수준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중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강화는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긍정적 학업성취의 경험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과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참여가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관심과 욕구에 반응하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와 연계되어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들에게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activity particip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To this end, data from the KCYP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were used, and this research proceeded with 2,471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This analysis method was a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any mediating effect.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Middle school students' youth activities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effect of youth activities particip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was mediated in part by academic achievement. Thus, a variety of youth activit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middle school students to increase their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th leaders and teachers should be provided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make career decisions by operating youth activity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the free semester system.

Keywords : Youth Activity, Career Decision-making, Academic Achievement, Career Barrier, Middle school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Sun-Kyoung Un(KC Univ.)

email: imokurok72@gmail.com

Received April 29, 2020

Revised May 19, 2020

Accepted June 5,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초등학교 환경과는 다른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중학생들은 성인기의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업을 갖게 된다. 성인기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학생들은 진로개발의 기초적 역량을 키우도록 요구받고 있고[1], 진로개발을 위해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위한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유학기제의 도입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2].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희망 등이 있다[1,2]. 성별과 관련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이 높다[3]는 보고도 있고,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으며[4], 여학생이 진로결정수준은 남학생에 비해 낮지만 진로준비행동은 더 활발하다는 연구도 있다[5].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으로 청소년활동 경험들 들 수 있는데, 청소년활동은 진로결정 및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6,7]. 청소년활동은 자존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8],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동아리 활동도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갖게 하는데, 이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10]. 이처럼 진로발달에 청소년활동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청소년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중학생들은 진로탐색과 더불어 학업에 대한 적응의 과업을 가지게 되는데, 학업은 큰 스트레스이면서 성적향상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때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1-14]. 진로가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은 진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채우는 역할을 하며 함께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은 당장 직면한 현실 과제인 학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진로와의 학습의 관계에 대해 진로=공부와 같이 동일시하거나 진로(꿈)을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15]. 이러한 중학생들의 인식은 중학교 첫 학기에 학업성취에 따른 성공 경험과 실제경험과 맞물리면서 진로와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감소하게 되는 학생들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학업을 소홀히 하기도 한다[11,16].

이와 같이 중학생이 학업성취에서 성공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진로에 대한 결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고트프레드슨의 제한-타협이론에 따르면[17], 직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목표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학업성취에서 성공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진로장벽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진로장벽은 '직업이나 진로를 계획함에 있어 진로목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외적 요인'이라 하였다[18,19]. 진로장벽은 학업성취와 관련한 요인 이외에 성별[19,20],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19,21]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고, 진로장벽은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9].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진로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22-25],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큰 폭으로 진로성숙도가 감소한다[25]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업성취는 진로장벽요인이면서 진로결정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또는 학업성취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청소년활동은 진로발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7,26-28].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을 확대하여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더불어, 학교 안팎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영역은 긍정적 경험을 통해 학습태도와 학습습관을 길러주고 학업성취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결과도 있다[26]. 따라서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학업성취라는 진로장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참여는 진로발달 및 결정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과 진로결정,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은 진로의 결정과 미결정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지점으로 정의된다[2,29,30]. 그러므로 중학생들의 미결정이 진로결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진로결정, 청소년활동,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청소년활동참여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수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의 모형은 다음의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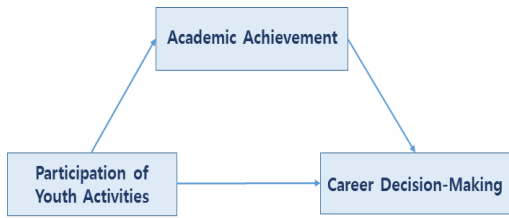


Fig. 1. Model of Research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 2,590명 중에서 학업성취수준을 응답한 중학교 1학년 2,47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방법

본 연구에 주요한 변수는 직업결정, 성별, 학업성취수준, 체험활동이다. 성별은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인인 장래직업결정은 '1=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2=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3=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있다'로서 진로결정점수가 높을수록 구체적인 직업을 결정한 것이다. 학업성취수준은 지난 학기 전과목 성적수준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으며, '1=매우 못함', '2=못함', '3=보통', '4=잘함', '5=매우 잘함'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은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하는 활동으로서 문화예술관련활동(공연감상 등), 과학정보관련활동(경진대회, 과학실험 등), 모험개척관련활동(탐사, 등반, 야영 등), 자원봉사활동(일손돕기, 자선·구호 등), 직업진로관련활동(직업체험, 진로탐색 등), 국제교류활동, 건강보건관련활동(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자기계발활동(자기표현, 마음수련 등), 환경보존관련활동(생태·숲체험, 환경살리기 등), 교내 공식동아리활동(방송반 등 학교에서 인정한 모임), 교회 공식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하는 모임)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참여횟수에 따라 '1=없음', '2=1~2회', '3=3~4회', '4=5회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석에서는 영역별 각 활동에 대한 응답을 합점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활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은 Sobel's test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중학교 1학년생 총 2,471명으로서, 남학생이 1,337명(54.1%), 여학생이 1,134명(45.9%)를 구성하고 있다. 진로결정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수는 618명(25.0%), 대략적인 결정을 했다는 응답이 1,178명(47.7%), 구체적인 결정을 했다는 응답이 675명(27.3%)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에 대해 매우 못한다는 응답이 52명(2.1%), 못한다는 응답이 308명(12.5%), 보통이라는 응답이 952명(38.5%), 잘한다는 응답이 868명(35.1%), 그리고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291명(11.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수준을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 Frequency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s		Respondents (N=2,471)	Percentage (%)
Career Decision-Making	Undecidedness	618	25.0
	Generally	1,178	47.7
	Concretely	675	27.3
Gender	Male	1,337	54.1
	Female	1,134	45.9
Academic Achievement	Very Low	52	2.1
	Low	308	12.5
	Middle	952	38.5
	High	868	35.1
	very High	291	11.8

지난 1년간 청소년활동 참여횟수에 대한 질문에 최소 11회 참여부터 최대 44회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는데, 평균적으로 20.7회를 참여했고 표준편차는 5.7회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의 영역별로 볼 때, 교내동아리 활동의 참여횟수가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활동, 직업진로관련활동, 자원봉사활동의 순으로 참여횟수가 많았다.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Variables

		N=2,471	
Variables		M	Std.
Academic Achievement		3.42	.925
Youth Activities Participation	Culture&Art	2.44	.982
	Science	1.65	.874
	Adventure	1.83	.904
	Volunteer	2.26	1.078
	Career	2.33	.994
	International Exchange	1.15	.456
	Health	1.86	.918
	Self-Improvement	1.64	.858
	Environment	1.57	.776
	Inside School Circle	2.61	1.35
	Outside School Circle	1.36	.822
	Total	20.69	5.74

3.2 상관관계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통제변인인 성별과 학업성취수준은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냈고($r=-.075, p<.01$), 체험활동 참여횟수와 학업성취수준($r=.177, p<.01$), 체험활동 참여횟수와 진로결정($r=.145, p<.01$), 학업성취수준과 진로결정($r=.080, p<.01$)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VIF값이 1.006~1.038의 결과를 나타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3.3 청소년활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 활동참여, 학업성취요인의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N=2,471				
Variables	1	2	3	4					
1	1								
2	-.028	1							
3	-.075**	.177**	1						
4	-.009	.145**	.080**	1					

*** $p<.001$, ** $p<.01$
 (1)Gender, (2)Youth Activities, (3)Academic Achievement
 (4)Career Decision-Making

청소년활동참여와 학업성취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청소년활동참여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학업성취수준을 높다고 생각할수록 진로결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1단계 청소년활동 참여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beta=.177, p<.001$), 2단계 청소년활동 참여가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beta=.145, p<.001$). 3단계에서 청소년활동 ($\beta=.135, p<.001$)과 학업성취($\beta=.056, p<.01$)가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활동 참여의 β 값이 .145에서 .13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활동 참여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의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Z=3.494, p<.001$). 즉, 중학생들의 청소년활동참여가 학업성취를 통한 진로결정의 구체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Table 4.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N=2,471	
Step	Variable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	R ²	F	
		B	S. E.	β				
Step1	Participation of Adolescent Activities → Academic Achievement	.029	.003	.177	8.957***	.031	80.234***	
step2	Participation of Adolescent Activities → Career Decision-Making	.018	.003	.145	7.283***	.021	53.046***	
Step3	Participation of Adolescent Activities→ Career Decision-Making	.017	.003	.135	6.686***	.023	30.433***	
	Academic Achievement → Career Decision-Making	.044	.016	.056	2.771**			

*** $p<.001$,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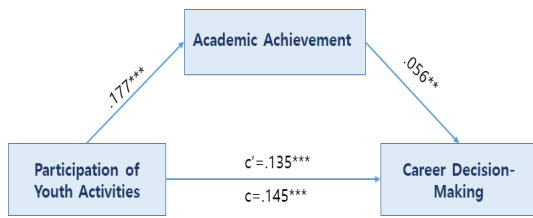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Effect Test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청소년활동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진로결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이 진로결정 및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6,7,10]. 둘째, 중학생의 청소년활동은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활동에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 [7,26-28]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청소년활동참여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수준은 부분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참여의 증가는 진로결정의 구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학업성취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진로결정 구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진로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학업성취요인이 청소년활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어떻게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밝혔다. 즉, 청소년활동참여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활동 참여를 강화하게 된다면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고, 긍정적 학업성취의 경험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활동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활동참여 경험이 증가는 구체적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들의 욕구와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제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1학년들에게 제공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시설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제공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참여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진로결정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학업성취수준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더 이상 학업성취가 진로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 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협력이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기관이 학교-지역연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및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의 지역사회운영 모델사업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창의적 체험활동의 연계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가 외부 동아리 활동참여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교내동아리활동에 대한 청소년기관의 지원을 통해 학교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동아리활동 활성화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자유학기제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의 의사결정수준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고[31], 동시에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보고되고 있다[32]. 따라서 학교-청소년 기관의 상호 이해, 소통의 강화를 통해 연계방식과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수,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연수, 그리고 공동 실무자 연수 등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31].

둘째, 청소년활동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긍정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과학활동, 국제교류활동 등과 같은 청소년활동보다 문화, 진로활동, 봉사활동과 같은 청소년활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활동이 학업에 도움이 되거나 학업의 연장선으로 느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과학 및 국제교류활동의

방법과 내용이 좀더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 학업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개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활동이 학업의 서열화가 아닌 다양하게 펼쳐진 영역에서 각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게 된다면 자기이해, 자존감, 자기효능감을 갖게 될 것이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학업 성취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 진로결정에 대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위축될 수 있는 중학교 1학년의 시기에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18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에서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응답된 학업성취수준을 활용하여, 실제 학업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활동과 객관적 학업성취수준, 그리고 진로발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1] J. S. Bai, B. K. Song, "A Study on Priority of Determinants of Career Decision Level in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Decision Tree Analysi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4, pp.79-105, Dec. 2015.
- [2] J. S. Kim, "Determinants of Career Decision Prob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s Behavior for Out-of-School Youth".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4, No.3, pp.27-49, Sep. 2017.
- [3] Y. J. Hwang, "Determinants of Career Decision and Perceived Level of Career Information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17, No.1, pp.131-158, Mar. 2007.
DOI : <https://doi.org/10.32465/ksocio.2007.17.1.006>
- [4] H. S. Oh, J. H. Bae, S. E. Lee, H. J. Jang, "The Comparative Study on Career Decision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9, No.2, pp.245-265, June 2010.
- [5] E. Y. Son, J. H. So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7, No.2, pp.399-417, May 2005
- [6] S. Y. Jung, "Effects of Participation Level of Youth Activities on Self-directed and Adult -dependent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Comparing Middle-school period and High-school Period".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3, No.4, pp.57-66, Nov. 2015.
- [7] Y. N. Kim, O. S. Park,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Activities: Focusing on Self-esteem, Vocational Maturity, Academic Achievement, Life Satisfaction, Stress,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1, No.1, pp.79-99, Mar. 2009.
- [8] J. S. Park,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Adolescents' Training Activity, Voluntary Service, Self-esteem And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y*, Vol.17, No.4, pp.157-182, Apr. 2010.
- [9] S. H. Kim, I. N. Kwon, "A Study on the Life Effectiveness Throughout Youth Training Activity Experienc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5, No.3, pp.155-176, Sep. 2008.
- [10] Y. S.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Club Activities to The Satisfaction of School Life*. Master's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6.
- [11] C. Y. Yun, S. Y. Kim, "The Effect of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Program on Career Self-Efficacy, Academic Motivation, and Time Management Skills for Middle School Freshme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24, No.1, pp.147-170, Feb. 2016.
DOI : <http://doi.org/10.18230/tjye.2016.24.1.147>
- [12] Mackenzie, E., McMaugh, A., O'Sullivan, K, "Perceptions of Primary to Secondary School Transition: Challenge or Treat?". *Issue in Educational Research*, Vol.22, No.3, pp.298-314, Dec. 2012.
- [13] McIntosh, K., Flannery, K. B., Sugai, G., Braun, D. H., Cochrane, K. L.,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s and Problem Behavior in the Transition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Vol.10, No.4, pp. 243-255, June 2008.
DOI : <https://doi.org/10.1177/1098300708318961>
- [14] K. H. Lim, M. J. Keum, M. S. Lee, "The Confirmation of Concepts of School Stres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61, No.4, pp.1111-1133, Dec. 2013.
DOI : <https://doi.org/10.25152/ser.2013.61.4.1113>
- [15] E. S. Kim, Y. S. Lee, D. W. Ki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Career Perception Proc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22, No.1, pp.203-221, Apr. 2015.
- [16] J. W. Lee, H. S. Kim, "The Effects of a Classroom-Based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Career Identity and Ego-Identity of Middle School 1st Gra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8, pp.191-217, Aug. 2012.
- [17] Gottfredson, G. D.,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No.6, pp.545-579, Nov. 1981.
DOI : <https://doi.org/10.1037/0022-0167.28.6.545>

- [18] E. R. Sohn, *Career Barriers Preceid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1.
- [19] B. K. Song, J. Y. Jeon,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of the Adolesc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20, No.1, pp.235-264, Mar. 2013.
DOI : <http://dx.doi.org/10.12653/jeccd.2013.20.1.0235>
- [20] G. N. Han, S. H. Yoo, H. A. Song,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Aspir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57, No.3, pp.211-235, Dec. 2009.
DOI : <http://dx.doi.org/10.25152/ser.2009.57.3.211>
- [21] J. H. Lee, *A Study on Career Maturity among Upper Graders in Middle School*. Master's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Kangwon. 2014.
- [22] H. Yoon, "A Study on Predictive Factors for and Gender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Vol.8, pp.97-124, Dec. 2011.
- [23] H. R. Lee, M. J. Ju, "The Effect of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on Career Maturity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0, No.2, pp.181-191, June 2007.
- [24] S. S. Koo, S. H. Park, "A Study of Elementary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The Related Variabl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5, No.1, pp.119-131, July 2007.
DOI : <https://doi.org/10.35151/kyci.2007.15.1.010>
- [25] I. H. Choi, "An Investigation of Factors Related to the Career Maturity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46, No.1, pp.161-186, Apr. 2019.
DOI : <https://doi.org/10.22804/jke.2019.46.1.006>
- [26] M. S. Jeon, T. K. Kim, "The Effect of Youth Activities on Adaption in School Life, Study Habit and Academic Achievement". *Forum for Youth Culture*, Vol.38, pp.71-90, Apr. 2014.
DOI : <https://doi.org/10.17854/ffyc.2014.04.38.71>
- [27] H. L. Coi, J. S. Lee, Y. K. Moon, "The Effect of Youth Circle Activity Satisfaction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9, No. 1, pp. 23-45, Mar. 2012.
- [28] S. J. Song, J. M. Kim, J. Y. Namgung, "The Effect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Club Activities on Their Self-Concept". *Studies on Korean Youth*, 23(1), 121-147, Feb. 2012.
- [29] V. N. Gordon, "Career Decidedness Types : A Literature Review".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6, No.4, pp.386-403, Dec. 2011.
DOI: <https://doi.org/10.1002/i.2161-0045.1998.tb00715.x>
- [30] B. H. Kim, C. Y. Jung, B. S. Kim, *Career Counseling*. Seoul : Hakjisa. 2006.
- [31] H. K. Kim, H. G. Kim, "The Effect of Media Video Production Career Education Program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Free Semester". *The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Vol 56, No. 1, pp. 58-85, Mar. 2019.
- [32] J. Y. Kim, "The Effect of Community-based Work Exper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Career Information Exploration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4, pp. 89-110, Dec. 2016.
- [33] J. Y. Lim, J. J. Kim, J. S. Kim, S. Y. Lee, *Encouraging Youth Activities Through Free Semester System: Focusing on Activities of School-Local Community Cooperation*. Sejong : Nati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4.

은 선 경(Sun-Kyoung Un)

[정회원]



- 1998년 8월 :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문학석사)
- 2010년 2월 :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2013년 2월 :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 가족, 여성